

보도시점

2023. 8. 28.(월) 10:30

배포 2023. 8. 28.(월)

인천지역 탄소중립·녹색성장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

- 환경부, 인천광역시 및 인천 소재 기업과 유엔기후변화협약 적응주간
부대행사로 업무협약 체결식 추진

환경부(장관 한화진)는 인천광역시 및 인천 소재의 7개 기업*과 함께 8월 28일 오전 송도컨벤시아(인천 연수구 소재)에서 ‘인천시의 탄소중립·녹색성장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’을 체결한다.

* (주)셀트리온, SK인천석유화학(주), HD현대인프라코어(주), (주)포레스코, 인천종합에너지(주), 한국남동발전(주), 한국남부발전(주)

이번 협약은 중앙-지방-기업 간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인천시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지원하고, 지자체 탄소중립 선도사례를 확산하고자 유엔 기후변화협약 적응주간(8월 28일~9월 1일)의 부대행사로 추진되는 것이다.

인천시는 ‘2045년 탄소중립 비전’을 발표하고, 공공청사 최초로 ‘기후위기사계*’를 설치하는 등 탄소중립 실현에 앞장서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, 전환과 산업부문의 온실가스 배출이 전체 배출량의 70%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지자체의 노력만으로는 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이 어려운 상황이다.

*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기반으로 지구의 평균온도가 산업화(1850~1900년) 이전보다 1.5℃ 상승하기까지 남은 시간을 보여주는 시계

이번 협약을 계기로 중앙-지방 정부는 탄소중립 관련 정책 정보 및 특전(인센티브) 제공을 통해 기업의 감축 활동을 지원하고, 기업은 산업·전환 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목표를 수립·이행하는 등 인천시의 탄소중립 추진을 위한 견고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.

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“원활한 지자체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서는 긴밀한 민관 협력이 필수적이다”라며, “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여러 지자체에서 눈여겨 볼 수 있는 성공적인 지자체 탄소중립 추진 사례를 만들겠다”라고 밝혔다.

붙임 인천지역 탄소중립·녹색성장 협력체계 구축 업무협약식 개요. 끝.

담당 부서	기후탄소정책실 기후전략과	책임자	과 장	김진식 (044-201-6640)
		담당자	사무관	노 을 (044-201-6657)



- (배경 및 필요성) 국가 관리부문(산업·전환)의 배출량 비중이 높은 지자체의 경우 지자체 주도의 온실가스 감축에 한계 존재
 - 환경부-지자체(인천시)-기업(산업·전환)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간담회 개최 및 협력체계 구축 MOU* 체결을 통해 지자체 주도의 감축활동을 지원
- * (협약명) 인천지역 탄소중립·녹색성장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
- (참석기관) 환경부, 인천광역시, 인천 소재 7개 기업 대표
- (일시/장소) '23.8.28(월), 10:50~ / 인천 송도 컨벤시아
- (세부일정)

시 간	주 요 내 용	비 고
10:50~10:52	개회 및 주요 내빈 소개	사회자
10:52~10:55	차관 인사말씀	
10:55~10:58	인천시장 인사말씀	
10:58~11:12	참석기업 인사말씀	협약 참여 7개사
11:12~11:19	협약서 서명 및 기념 촬영	
~11:20	마무리	사회자

□ 협약 주요 내용

- (환경부) 국가 탄소중립 정책방향 공유 및 소통 확대, 참여기업에 온실가스 배출량 진단 및 감축 컨설팅 제공 등 인센티브 발굴
- (인천시) 지자체 기본계획 內 산업·전환부문 감축대책 마련·이행, 참여기업과의 온실가스 감축사업 기획 및 기업 감축활동 지원
- (기업) RE100 참여 등 탄소중립 동참 노력 확대, 기업 온실가스 감축목표·사업 추진계획 공유를 통해 지자체 감축목표 달성에 협조